

Q2. 기준년도를 2013 년이라고 할 때 국내총생산에 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2015 년의 명목 GDP 는 \$2500 이다.
- ㄴ. 2014 년의 실질 GDP 는 \$2000 이다.
- ㄷ. 2015 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32 이다.
- ㄹ. 2014 년의 물가상승률은 40%이다.

- a. ㄱ, ㄴ
- b. ㄱ, ㄷ
- c. ㄱ, ㄹ
- d. ㄴ, ㄷ
- e. ㄴ, ㄹ
- f. ㄷ, ㄹ

(정답) d. ㄴ, ㄷ

2014 년의 명목 GDP 는 $\$5 \times 200 + \$2 \times 1000 = \$3000$ 이고 실질 GDP 는 $\$5 \times 200 + \$1 \times 1000 = \$2000$ 이다. 2015 년의 명목 GDP 는 $\$6 \times 300 + \$4 \times 1000 = \$5800$ 이고 실질 GDP 는 $\$5 \times 300 + \$1 \times 1000 = \$2500$ 이다. 따라서 2014 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3000 / \$2000 \times 100 = 150$ 이고 2015 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5800 / \$2500 \times 100 = 232$ 이다. 즉 2014 년의 물가상승률은 $(150 - 100) / 100 \times 100\% = 50\%$ 이고 2015 년의 물가상승률은 $(232 - 150) / 150 \times 100\% = 54.7\%$ 이다.

Q3. 치맥랜드의 소비자물가지수 바구니(CPI basket)는 치킨 1 마리와 맥주 5 톤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준년도를 2013 년이라고 할 때 맞는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 ㄱ. 2014 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보다 크다.
- ㄴ. 2015 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보다 크다.

- a. ㄱ
- b. ㄴ
- c. ㄱ, ㄴ
- d. 둘 다 틀림

(정답) b. ㄴ

2013 년의 CPI basket 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은 $\$5 \times 1 + \$1 \times 5 = \$10$ 이고 2014 년은 $\$5 \times 1 + \$2 \times 5 = \$15$ 이고 2015 년은 $\$6 \times 1 + \$4 \times 5 = \$26$ 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 년에는 100, 2014 년에는 $15 / 10 \times 100 = 150$, 2015 년에는 $26 / 10 \times 100 = 260$ 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물가상승률은 2014 년에는 $(150 - 100) / 100 \times 100\% = 50\%$ 이고 2015 년에는 $(260 - 150) / 150 \times 100\% = 73.3\%$ 이다. 즉 2014 년에는 두가지 방식의 물가상승률이 일치하지만 2015 년에는 CPI 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이 더 크다. 2014 년에 두가지 물가상승률이 일치하는 이유는 2014 년 치킨과 맥주의 생산량의 비율이 CPI basket 의 비율과 같기 때문이다.

Q4. 치맥랜드의 2013 년 소비는 \$600, 투자는 \$200, 정부지출은 \$200, 조세수입은 \$100 이다.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2013 년의 순수출은 \$0 이다.
- ㄴ. 2013 년 정부는 재정적자 상태이다.
- ㄷ. 2013 년의 민간저축은 \$300 이다.

- a. ㄱ, ㄴ
- b. ㄱ, ㄷ
- c. ㄴ, ㄷ

d. ㄱ, ㄴ, ㄷ

(정답) d. ㄱ, ㄴ, ㄷ

2013 년 소득은 \$1000 이다. $NX=Y-C-I-G$ 로부터 순수출은 \$0 이다.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 상태이다. 민간저축은 $Y-C-T$ 로부터 \$300 임을 알 수 있다.

Q5. 대부자금시장 (the market for loanable funds)의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자금규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면 균형이자율은 증가하고 균형거래규모는 감소한다.
- ㄴ.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면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규모 모두 감소한다.
- ㄷ.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면 균형이자율은 증가하고 균형거래규모는 감소한다.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ㄱ, ㄴ, ㄷ

(정답) c. ㄴ, ㄷ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면 소비의 유인이 줄어들어 주어진 이자율에서 저축이 늘어난다. 따라서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이자율은 감소하고 균형거래규모는 증가한다.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어들면 투자의 유인이 줄어 주어진 이자율에서 투자가 감소한다. 따라서 대부자금시장에서 투자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규모 모두 감소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주어진 이자율에서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균형이자율은 증가하고 균형거래규모는 감소한다.